

2020년 6월 28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빌 2:12-13)

사람에게는 자기 생각과 견해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 취하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확증편향의 오류라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보편적인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신앙 속에서도 이런 성향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몇 날 몇 시에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나 하는 정보 채집을 중심으로 읽습니다.

이단일 수록 확증편향 오류는 심해집니다. 자기 교리에 대한 증거 구절을 확보하고 체계화하여 조직적인 지식체계를 만듭니다. 이에 대한 열정도 대단합니다. 이런 방식과 성향 속에서는 근본적 관점의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관점만 점점 강화될 뿐입니다. 또한 이런 확증편향의 오류에 빠진 상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1]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라고 표현한 것은, 고난과 죄와 죽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불확실성을 두려워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실적 임재 앞에 설 때, 그분이 깊이 의식되고 느껴지며 그분께 압도당하는 경외심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정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은 주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고 모든 것을 의탁드리는 존재라고 고백하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영적 태도입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확증편향 속에서는 나타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전 5:1-2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마음을 조급하게(재촉의 마음)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전 5:7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라고 말합니다.

마 5:8 마음이 청결함은 하나님만을 구하는 순전한 마음이며,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게 되는 감정과 태도를 두렵고 떨림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대부분 해석은, 구원에는 칭의와 성화의 구원이 있는데 칭의는 처음 믿을 때 받았으니까 성화를 이루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일면 틀린 말이 아니지만 본문의 앞뒤 문맥을 보면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의 진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문맥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주님 뜻을 위하여 소원을 갖게 하신다

12 절은 “그러므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찬양시 2:6-11의 내용을 전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찬양시의 핵심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죽기까지 순종하며 십자가에 죽으시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줄이면,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주님과 같이 순종의 삶을 본받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참여하여 이루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해 어떻게 이루시는가? **13 절**에서 말합니다. 우리의 내면에 활동하셔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소원하여 행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아버지의 뜻을 소망한다는 말은 당연히 행하고 싶은 동기부여를 말합니다.

참으로 훌륭한 작곡자의 작품과 탁월한 지휘자와 열정 있는 연주자들이 있어도 연주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조건 중 하나는 곡에 대한 작곡자의 뜻과 의도를 아는 것입니다. 의도를 모르는 열정 있는 연주는 오히려 불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창조의 뜻을 알고 이루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은 내가 받은 개인적 차원의 구원이 덜 돼서 더 이루라는 말을 넘어, 아버지의 창조의 뜻, 공동체적으로 더 잘 어울리고, 더 친절하고,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한 창조의 뜻과 목적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맺음>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의 개인적 차원만을 생각하는 한계를 넘어서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갈 때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며, 주님의 순종을 배우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권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날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기쁘신 뜻을 알아가며 행하기를 소망하는 힘으로 정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1.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 묵상,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두렵고 떨림의 영적 태도를 경험합니까?
2. '나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어떤 내용을 포함합니까? 오늘 설교 속에서 나의 현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으로 들어야 할지 묵상하며 정리해 보십시오.